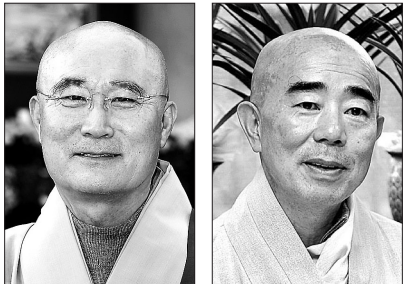


동국대 신임 이사 선출 지원·정념·법산·세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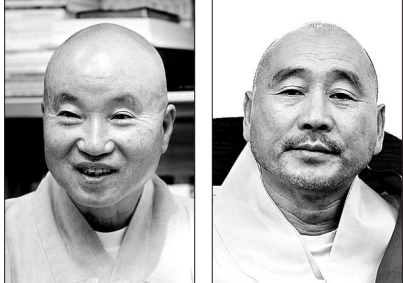
2월 3일 이사회사... 3월 중앙총회서 추인

동국대 신임 이사에 조계종 호계원장 지원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선출됐다. 신임 이사들의 선출로 정수 13명이 채워졌으며, 향후 임원 사퇴 결의가 순차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스님

정념 스님



법산 스님

세영 스님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성타)는 2월 3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99차 회의를 열고 공석 중인 이사 4명을 선출했다.

이사회는 명신 스님 후임으로 법산 스님을, 삼보 스님 후임으로 정념 스님을, 지홍 스님 후임으로 지원 스님을, 수불 스님 후임으로 호법부장 세영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앞서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통해 이사 명신·삼보·지홍 스님과 이사 선임 전 사퇴했던 수불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 법산·정도 스님과 정념·원명 스님, 지원·정념 스님(홍천사 주지), 세영·성무 스님을 각각 추천했다.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르면 종관위는 임원 후보를 선정해 중앙총회 동의를 얻어 동국대에 복수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월 26일 열린 중앙총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인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국대 결원 이사 선출이 3

일 이사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후 선출 이사를 대상으로 중앙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종법에서 동국대 이사에 대한 추인 등과 같은 조항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우봉 스님과 김선근·김기유 이사를 추천했다. 또 동국대 총예산을 기존 6420억원에서 240억 늘어난 6660억원으로 확대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총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전원 이상無

중앙선관위는 2월 4일 열린 제311차 회의에서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직선직 쌍계사 2명, 직능대표 2명, 비구니대표 1명 등 총 5명의 스님의 후보자격을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쌍계사 직선직은 전 주지 성조 스님과 전 중앙총회의원 이암 스님이 입후보했으며, 2명 선출에 2명이 등

복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될 예정이다. 직능대표(교육)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호 스님이 입후보했으며, 직능대표(강원)에는 송광사 일화 스님이 등록했다. 또 비구니대표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직능대표와 비구니대표는 2월 22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노덕현 기자

제주 관음사 주지 현 직무대행 허운 스님

관음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호)는 3월 2일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를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관음사선관위는 산중총회를 열고 주지를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중앙선관위가

후보로 등록한 허운 스님에 대해 경력 부족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허운 스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자격있음으로 재판정했으며 선거가 재개되게 됐다.

단독후보인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운 스님이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덕현 기자

미완의 ‘1983년 개혁’ 재조명 된다

비상중단개혁총책연구모임 결성, 올해 세미나 등 개최

1983년 조계종에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본사 주지 임명을 두고 스님들 간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10·27 법난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시기, 불자대중들은 조계종에 대한 분노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모임 취지를 설명하는 조계종 총회의장 성문 스님(사진 왼쪽)과 이희선 개혁연구모임 회장.

1983년 9월 조계사 승려대회 후 소장 스님들과 청년재가운동가들은 중정 성철 스님의 교시를 받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비상중단을 구성한다. 이른바 83년 중단비상조치다. 당시 비상중단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파격적인 여러 정책을 입안한다. 본사의 폐지 및 도심지 교구 신설, 상·하원 임법기관 구성 및 재가자 입회, 사찰재산관리 공영화, 재가 전법사 제도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개혁은 승단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이내 좌초되고 만다.

1983년 비상중단 사태 후 33년 뒤인 2016년, 당시 비상중단 개혁을 이끈 소장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이 때의 개혁안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고 나섰다. 비상중단개혁총책연구모임이 그것이다.

비상중단개혁총책연구모임(회장 이희선, 이하 개혁연구모임)은 2월 2일 서울 조계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총책 재조명사업에 대한 의미와 계획에 대해 밝혔다.

개혁연구모임은 당시 비상중단운영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조계종 총회의장 성문 스님을 고문으로 이희선 회장 등 재가 학자들로 구성됐다.

이희선 회장은 “비상중단 1년간의 활동은 결국 미완의 개혁이 됐지만 현재와 94년 개혁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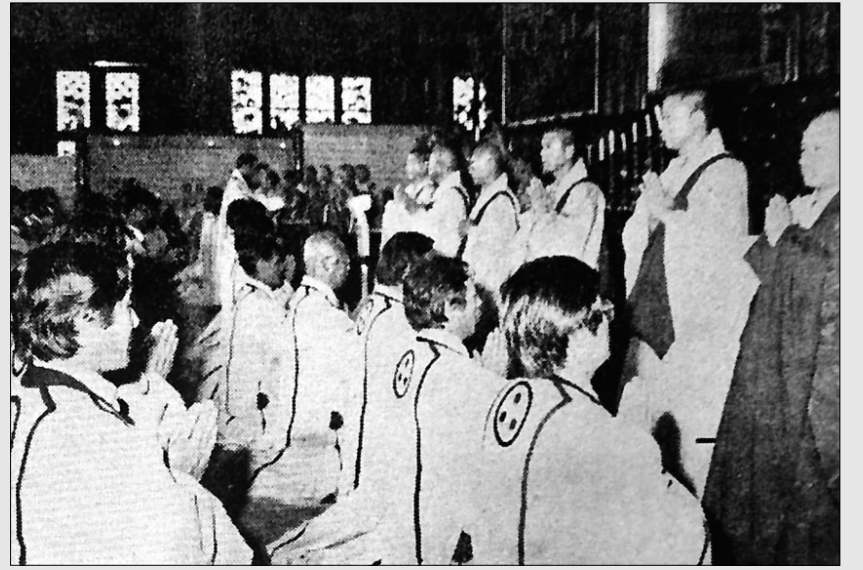
총회의장 성문 스님 고문으로
당시 재가학자 등 10여명 참여
2월 25일 세미나 및 자료 발간

“특히 현재에도 유의미한 총책이 많은 만큼 재조명을 통해 불교 쇄신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당시 소장 스님들 대표였던 성문 스님이 연구모임 고문으로 함께 자리해 당시 활동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의미를 털어냈다.

성문 스님은 “10·27법난 이후 젊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인식 변화가 크게 일어난 시기였다. 그러던 와중 신홍사 사건이 터지자 이들이 단식농성 등으로 집행부를 물러나게 하고 비상중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당시 전법사 제도를 두어 스님을 보좌하는가 하면 시대 흐름에 맞춰 불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선보였다. 이때 입안한 여러 총책이 정착됐다면 현재 한국불교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중단 측은 1984년 제1기 전법사 품수식을 열어 80여 명이 품수를 받았



1984년 7월 15일 비상중단이 진행한 전법사 품수식 모습

다. 이런 전법사 제도는 현재 포교사 제도의 전신이었다. 전법사 제도와 함께 현 중회 역할을 대신한 교정회의에도 재가불자 배정을 추진했다. 시민단체가 총회의 재가불자 배정 등을 주장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다.

본말사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사와 직할시에도 교무원을 설치해 시군구 단위로 중앙집권식 중무행정을 도입하고 각 사찰에서 수의사업을 전개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찰 재산관리기구를 신설하여 사찰 재정 안정화를 꾀한 것도 특징이었다. 이런 개혁도 채 1년 만에 좌초된다. 급진적인 변화에 원로·중진 스님들이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교시를 내리는 등 비상중단을 지지했던 성철 스님도 개혁안 발표 후 이를 거부했고, 곧이어 전국승려자 대표회의에서 녹원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다시 선출하며 비상중단 체제는 막을 내린다.

성문 스님은 “짧게 끝난 개혁 움직임이었지만 이후 불교 개혁의 청사진을 남겼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로소 이제가 처음으로 조명하게 됐다”며 “개혁은 대중들과 함께 해야 이뤄진다. 그렇게 본다면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연구모임은 지난해 11월 12일 성문 스님과 법타 스님, 이응부 당시 문광부 중무실장,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 정승석 불교학술원장, 장병중, 김영국 씨 등과 함께 좌담회를 갖고 재조명 운동에 뜻을 모았다.

현재 비상중단 관련 스님 및 재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월 25일 오후 3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정승석 교수가 ‘비상중단의 진경과 미 성과와 한계’, 박부영 불교신문 기자가 ‘비상중단의 개혁과 94년 개혁의 비교검토’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관한 자료집도 발간된다.

이희선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설립된다

조계종·문화재청 추진... 2018년 최종 완공

조계종이 불교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 조계종과 협의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교유산 소장자 중심의 보존센터 건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존센터는 국고지원으로 140억원, 조계종에서 60억원을 부담해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사찰이 소장

하고 있는 불교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 복원, 연구를 담당한다. 올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기본설계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불교계는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재 일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찰성보 약 10만 7000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국보와 보물, 지방유형문화재 등 지

정문화재가 1490점이며 나머지 98.6%에 달하는 10만 5950점이 비지정문화재이다.

2018년 완공예정인 보존센터는 목조, 석조 금동 등 불상과 불화 등 지류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한다. 더불어 보존환경 개선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복원, 사찰에 맞게 보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불교문화재 보존처리 업체에 공간을 지원하고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 3월 29일~4월 6일 범어사

조계종의 정식 스님을 배출하는 구족계 수계산림이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8박 9일동안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제36회를 맞는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의 수계대상은 2012년 3월까지 사미계 또는 식차마나니계를 수지한 사미·식차마나니로서,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4일까지이며,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大韓佛教禪教宗 宗正 瑞海堂 慧宗 大宗師의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및 追慕齋(49齋) 案内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월 27일 입적하신 대한불교선교종 중정 서해당 혜종 대중사의 영결식을 1월 30일 중단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해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49재 안내

초재 : 2월 2일	5재 : 3월 1일
2재 : 2월 9일	6재 : 3월 8일
3재 : 2월 16일	막재 : 3월 13일(일요일)
4재 : 2월 23일	•장소 : 덕성사 큰법당

불기 2560년 2월 2일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도인 합장
대한불교선교종 화엄문도회 일동

